

장흥군 공직자 우울한 연말

인구 감소로 2개과 폐지...10년만에 사무관 승진 없어 정년 연장·조직 감축 영향, 하위직도 인사 적체 심화

조직 감축과 정년 연장으로 인사 적체가 심화되면서 장흥군 공직사회가 우울한 연말을 맞고 있다. 장흥군에 따르면 군청 등 공직 사회가 인사 적체로 사기가 저하돼 있다. 특히 매년 3~4명씩 선발되던 사무관 승진 대상자가 올해는 단 한명도 없어 사기 저하를 부채질하고 있다. 지방 공무원의 꽃으로 불리는 사무관 승진 대상자가 전무한 것은 10여

년만에 처음 있는 일로 인구 감소로 인한 군청 조직 축소 때문이다. 장흥군은 5만명 인구가 2년 이상 붕괴될 경우 2개 실·과를 줄여야 하는 지자체 기구 편제상 지난 상반기 재난 관리과를 폐지한 데 이어 다음 달 말에는 마케팅 과를 폐지할 계획이다. 여기에 올해부터 6급 이하 공무원들의 정년 연령이 57세에서 연차적으

로 60세까지 연장돼 하위직 공무원들의 승진 폭도 좁아졌다. 장흥군의 경우 타 시·군에 비해 5급(사무관)에서 9급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으로 인사적체를 받고 있어 산하 공무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장흥군은 도내 22개 시·군 가운데 사업소 직제가 유일하게 없다는 명분을 내세워 지난달 전남도에 '(가칭)상하수도 사업소' 설치 승인 신청을 했다. 상하수도 사업소가 설치 될 경우 5급 1명과 6급 2명 등의 승진 요인이 발생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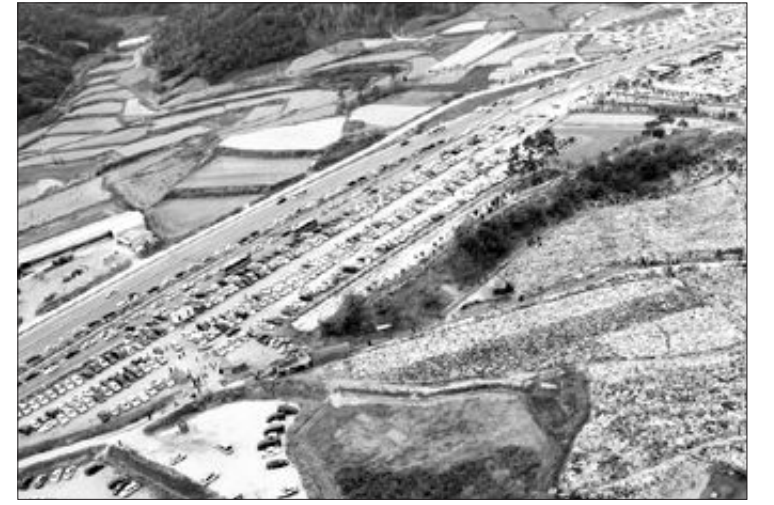
/장흥=김용기기자 kykim@

함평 '국향대전' 절정

주말 3만여명 찾아...명품 국화 작품에 탄성 절로

대한민국 국향대전 개막 후 두 번째 주말인 지난 8일 전국 각지에서 몰려든 3만여명의 관광객들이 함평 자연생태공원을 찾은 것으로 집계됐다. 또 3천대가 동시에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도 차량들로 가득찼다. <사진> 관광객들은 생태공원 진입로 옆 19만㎡에 펼쳐진 국화의 향연에 흠뻑 취했고 산책로를 따라 자리잡은

에펠탑, 거북선, 첨성대, 피라미드 등의 작품에 탄성을 질렀다. 특히 가로 31m, 높이 8m 규모의 '마법의 성'을 통과해 진입하는 1천 300㎡ 규모의 전시관에는 국화분재, 현애작, 다룬대작, 입국다간작, 복조작 등 국화 작품 700여점이 전시돼 눈길을 끌었다. 또 잠자리, 귀뚜라미, 메뚜기, 여치, 사마귀 등 살아있는 가을 벌레들을 관찰할 수 있는 곤충학습장은



어린이들의 인기를 끌었고 승례문 앞에 세워진 오바마 미 대통령 당선자의 포토장도 종일 붐볐다. 관람객들은 "전국에 있는 국화

축제장 가운데 함평 만큼 잘 꾸며 놓은 곳은 보지 못했다"며 감탄사를 연발했다.

/함평=박영진기자 pyj4079@

“느리게 걸으며 여유로움을 느껴 보세요”



아시아 최초로 '슬로 도시' 인증을 받은 담양군 함평에서 지난 8일 전남도 주최 걷기 행사가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수도권권과 영남권, 광주 등 전국에서 1천여 명의 관광객이 참가해 창평면 일대를 돌며 날뽕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체험했다.

/최현배기자 choi@

“도서기증운동 동참해 주세요”

영암군 2011년까지 장서 20만권 확보 목표

영암군이 독서의 계절을 맞아 올해 2번째 도서기증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영암군은 평생교육도시 기반 조성 노력의 하나로 현재 11만권인 장서를 2011년까지 20만권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3년간 2억여원의 예산을 투입해 8만여 권을 구입하고 1만여 권은 군민 도서기증운동으로 확보할 계획이다. 영암군은 군 산하 공직자와 군민, 각급 기관·사회단체 및 향우들에게 장서 기증운동을 홍보하고

기증자에게는 감사 서한문을 발송하고 있다. 영암군은 지난 1~3월에도 도서기증운동을 펼쳐 1만 3천여 권의 장서를 기증받은 바 있다. 김일태 영암군수는 “영암군 정보문화센터가 평생교육도시인 영암의 랜드마크 구실을 할 수 있도록 장서 기증운동에 많은 참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영암=박진표기자 lucky@

남해안 김 양식장 ‘씩갯병’ 주의보!

저수온 심화·가을 가뭄 영향...각별한 관리 필요

전남 남해안 지역에서 김 양식 시설 작업이 한창인 가운데 저수온에 따른 옷자람과 썩갯병이 우려돼 어민들의 각별한 여장관리가 요구되고 있다. 9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고흥수산사무소에 따르면 김 주산지인 고흥과 완도 등 남해안 수온이 예년보다 0.5℃ 가량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달 초순 수온은 평균 17.8℃로 예년 18.3℃에 비해 0.5℃ 낮은 등 지난

달부터 저수온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바다 온도가 낮아지면서 ‘육묘’ 단계에서 어린 김이 옷자람에 썩갯병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또 심각한 ‘가을가뭄’ 등으로 민물 유입이 적어 염분 농도가 짙어지면서 썩갯병 발생 우려를 더하고 있다. 시설이 밀식되거나 햇볕 노출이 적은 일부 김 양식 시설에서는 김 염색이 얼은 복숭아색이나 자주색으로 변

하는 썩갯병이 이미 발생하고 있다. 특히 바닷물 흐름과 간만의 차가 적은 ‘조금’ 때 원활하지 못한 조류 소통 등으로 어린 김 포자의 폐사 가능성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흥사무소 관계자는 “김 양식은 초기 어장 관리가 한해 작황을 좌우하는 만큼 밀식 자체, 적당한 햇볕 노출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고흥지역은 올해 김 양식어가 230곳에서 3천700ha에 4만여액을 시설, 250억원 가량의 소득이 예상된다.

/고흥=주각중기자 gjuu@

함평 가뭄 장기화 대비 저수지 32곳 준설 착수

함평군이 가을 가뭄 장기화에 대비해 저수지 준설에 나선다. 함평군은 올 연말까지 대동·금계·산남 등 저수지 32곳의 준설사업을 시행한다. 이들 저수지는 가뭄에다가 퇴적물까지 많아 내년 영농에 차질이 우려돼 준설이 시급한 실정이다. 저수지 준설사업은 이달 중 착수돼 이르면 올 연말까지 마무리될 예정이다.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이낙연(함평·영광·장성) 위원장은 “사업이 완료될 경우 저수지의 담수능력이 확대돼 농업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고 말했다.

/함평=박영진기자 pyj4079@

나주배조합도 神의 직장?

‘품목조합’간 인사 교류 제한 사실상 불박이 보직 비위 직원도 보직 변경 등 대안 없어 부작용 속출

배나 원예와 같이 특정 작물을 생산하는 조합원들의 조직체인 ‘품목조합’간 인사 교류가 제한돼 있어 특정이인 기간 같은 보직에 근무하는 등 조직 관리에 부작용이 일고 있다. 전남도내 품목조합은 나주배조합 등 7곳으로 이들 조합의 경우 조합장 간 의견 조율을 거쳐야만 인사교류가 가능해 사실상 조합내에서만 인사가 이뤄져 왔다. 이 때문에 비위행위를 저지르는 등 물의를 일으킨 직원도 경미

한 징계처분만 받은 채 보직이동 없이 계속 근무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 조합장이 인사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없어 근무시간에 직원들이 근무지를 이탈하는 등 부작용이 많다. 실제로 나주배조합의 경우 최근 직원 A씨가 동료 직원인 B씨를 폭행, 광대뼈에 금이가는 중상을 입혔는데도 조합측은 신상처벌 수위를 놓고 고심하고 있을 뿐 보직 변경 등 근본적인 대안을 찾지 못

하고 있다. 더욱이 A씨는 지난해 수천만원 상당의 농자재를 사전 결제 없이 구입해 인사위원회에 회부됐으나 보직 이동 없이 가벼운 견책처분을 받는데 그쳤다. 나주배조합 관계자는 “A씨의 경우 예전에도 조합원을 폭행해 말썽을 빚은 바 있다”며 “그러나 마땅히 보낼 때가 없어 불가피하게 같은 보직에 20년 넘도록 근무하고 있다”고 말했다. 나주배조합 신현담 전무는 “이번 사건과 관련 오는 19일 인사위원회가 소집될 예정이나 보직 변경이나 타조합 진출 등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나주=최승렬기자 srchoi@

‘나주 학생 국악발표회’

나주교육청(교육장 서상락)이 지난 7일 나주문화예술회관에서 그동안 학생들이 갈고 닦은 기량을 마음껏 펼쳐보는 국악학마당인 ‘2008 나주 학생국악발표회’를 개최했다. 나주교육청은 예향 남도의 전통문화를 계승 발전시키고 학생들의 특기와 소질을 조기에 계발하기 위해 10년째 이번 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이번 학생국악발표회에는 사물놀이, 민요(국악기법창), 국악기 연주 등 10개 종목, 32개 팀 527명이 참가해 열띤 경연을 벌였다. 서상락 교육장은 “국악발표회가 학생들의 창조적 표현과 예술적 감각을 일깨워 올바른 가치관을 정립하고 우정과 친목을 돈독히 하는데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나주=정철형기자 chung@

HONG KONG

무안 홍콩 직항 전세기

신속이행·가득이행·개발여행은 편리한 무안국제공항에서 출발!!

즐거움, 편안함, 여유를 느낄 수 있는 홍콩

홍콩의 다양한 볼거리, 쇼핑, 문화, 공연 등을 소개하는 영상

무안국제공항에서 출발하는 직항 전세기

홍콩의 다양한 볼거리, 쇼핑, 문화, 공연 등을 소개하는 영상

무안국제공항에서 출발하는 직항 전세기